

韓國에서의 情報化進展과 그 収用

通信政策研究所 研究委員
盧圭亨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정보화진전을 정보유통센서스에 의해 알아보고 둘째 정보화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수용을 설문조사에 의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보유통센서스란 한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총량적으로 파악하여 화폐유통량, 경제활동인구 통계처럼 정보유통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중매체가 아닌 개인 전달매체의 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 일본 등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개인정보매체의 종류는 편지, 엽서, 전보, 일반전화, 데이터통신, 텔렉스, 팩시밀리, 전용회선, 차량전화 등 9가지 종류였으며 시간으로는 통계자료가 가능한 1963년부터 1984년까지였다. 정보유통의 기본단위는 우리나라 어문구조상 가장 기본단위로 생각되는 음절을 선택하였으며 각종 행위조사와 표본 조사에 의하여 각 매체별 단위시간별 음절수를 계산하여 년도별 총 정보량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각 매체가 갖는 전송방법의 상이점, 전송형태의 상이점, 통계자료상의 상이점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통된 단위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정보 유통량을 측정가능하게 하고 상호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의 유사 선행연구가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연구를 가능케 하는 잇점이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측면을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개혁확산 이론을 도입하여 정보화에 대한 원리지식, 인지지식을 파악하여 정보화에 대한 인지단계를 검증하였고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보급에 따르는 설득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정보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호응여부를 검토하였다.